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38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1월 30일 (음력 12월 14일) 화요일

국민의당 텃밭 광주·전남 '운명의 1주일'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2담회실에서 열린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추진위 제1차 확대회의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당당준비위 중앙운영위 1차 회의에서 조배숙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창당 2년 만에 분당의 갈림길에 서면서 창당 기반이자 텃밭인 광주·전남지역의 당원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운명의 1주일'을 맞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9일 광주·전남 지역선거에 따르면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로 구성된 민주평화당

(민평당) 창당추진위원회는 당초 2·4 임시전당대회 다음날인 2월5일로 예정됐던 광주·전남·전북·서울·경기지역 시·도당 창당대회를 1일로 앞당겨 개최하기로 했다.
2월6일 중앙당 창당을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당 전대와 2월5

민주평화당, 1일 시·도당 동시 창당 분당 현실화
안 대표 사퇴, 2·4 전당대회 전 집단 탈당 '촉각'
반대파 가처분·중재과 진로·평창올림픽 등 변수

일 바른정당 전대에 앞서 세(勢) 물이를 통한 주도권 선점을 위한 '기습 행보'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결집지 당적(복수 당적)이 불가능한 만큼 창당대회 전 집단 탈당도 예상된다. 이미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의원 상당수는 "안철수 사당화와 보수 색채로는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며 탈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전날 공개된 민평당 창당발기인 명단에 이미 광주·전남에서는 박지원·전정배·장병완·박준영·윤영일·정인화·최경환·김경진·이용주 등 현역 국민의당 국회의원 9명과 박홍을 목표시장, 고길호 신안군수 등 단체장 2명, 광주·전남 광역의원 16명이 이름을 올렸다.
중재과와 진로로 전당대회 전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박주선·김동철·주승용·황주홍·손금주 의원 등 최대 7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중재과는 창당대회 전 안 대표와 5자회담과 회동을 갖고 최종 결단을 내릴 예정이다.
만일 안 대표가 중재과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 대표에서 사퇴할 경우 중재과 대다수는 당에 남고, '안철수 사당화' 독재, '불통'을 이유로 등을 돌린 민평당 측의 내

부 동요도 예상된다.
그러나 이럴 경우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의 입지가 좁아질 수 밖에 없고, 유 대표 역시 정치적 결단을 강하게 요구받을 수 있는 만큼 중재과 진로는 여러 변수에 가로막혀 여전히 예단할 수 없는 안갯 속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통합 반대파의 전당대회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 8일 전야제와 9일 개막식을 갖는 평창동계올림픽도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통합 반대파는 '안 대표와 통합파의 전당대회 추진이 불가피적으로 진행됐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에 제기한 상태며, 인용될 경우 전대 강행이 어렵게 되고 기각되더라도 반대파의 조직적 반발이 예상돼 갈등과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통합파와 반대파 간의 숨겨진 일정이 1주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달는 갈등이 설령 전당대회 이후까지 이어지더라도 동계올림픽이 개막하면 정치적 이슈는 분하고 국민적 관심이 풀 수 없어 어떤 식으로든 올림픽 개막 전에는 큰 틀의 교통신호가 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주춘경 기자



문제의 집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6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던 0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이 24일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접시를 먹다가 혼수상태에 빠져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상태가 호전돼 현재 일반 병실에 입원 중이다. 83세인 그는 평소 고혈압에 당뇨를 앓고 있다. 양쪽 눈도 사실상 실명 위기라고 한다.
이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최근에도 이 전 의원이 한 번 쓰러진 적이 있다"며 "검찰 조사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쓰러지지 않는 게 이상할 일"이라고 했다. "검찰이 심족(心族)을 멸할 분위기로 몰아가는 데 버틸 재간이 있었느냐"고도 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1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 부터 특별비 1억여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관련 인사들의 추세를 상상에 본다.

서은홍 · 자료사진 = 뉴스시스



광주·전남 국회의원 재보선 최대 6곳 '미니총선' 되나...현역출마·당선무효형 '촉각'

통합신당·민주평화당 선전 여부 관심이 높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재·보궐선거는 매년 4월 첫째주 수요일에 한차례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 이에 따라 올해 선거일 전 30일(5월 14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질 경우 재보선이 치러진다.
광주·전남지역은 그 어느때보다 국회의원 재·보선이 여러 곳에서 실시될 가능성

이 높다.
전남지사 선거는 그동안 민주당 이개호 의원, 노관규 전 순천시장간 경선 승자와, 국민의당 박지원-주승용 의원간 경선 승자간 분선이 예고됐지만, 주 의원이 통합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민주당-통합신당-민주평화당(가칭) 등 3자 대결 구도가 예상된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30일까지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역인 민주당 이개호 의원-통합신당 주승용 의원-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간 분선 대결이 이뤄질 경우 전남지역에서 3곳의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다.
광주시당 선거도 국민의당 분당으로 인해 3자 구도로 치러질 경우 통합신당이나 민주평화당에서 후보를 내놓을지 관심이 가운데 중재파인 김동철 의원 등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시장직에 도전할 경우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2심까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과 박준영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결정할 대법원 선고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 의원은 선거법 위반, 박 의원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각각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해 6·13지방선거 30일 전인 5월 14일까지 당선무효형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예상대로 6·13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재보선이 '미니총선'이라고 불릴 만큼 최대 5~6곳이나 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지역의 정치지형도 변화가 예상된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중 민주당 소속이 1명이지만 재보선에서 당 지지도가 높은 민주당 약진이 예상되며 갈라선 통합신당과 민주평화당의 선전여부도 귀추가 주목된다.
최남규 기자

노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활기찬 산업현장!

노·사 갈등을 넘어 상생할수 있는 전남노사민정 사적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 노·노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라남도 노사갈등 조정해결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 노·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에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